제8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이 편에서는 2014년 한국 연구자들의 근대 중국관련 유교 연구 현황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정리·평가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근대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서세동점을 통한 서구와의 접촉을 근대로 이해하므로, 여기서도 중국 근대기를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5년 제2차 대전의 종전까지로 정하였다.

근대기 중국 유교 및 중국 철학의 전통적 주제는 근대성이다. 그 중에는 서구와 비견되는 동아시아 근대화론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근대 담론은 서구권에서도 다양한 논쟁거리지만,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비서구권에서는 그야말로 일인일주장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을 포함한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근대성을 서구화 또는 산업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중 서구화로 보는 주장은 근대성을 오로지 서구의 것으로만 한정시키려는 옥시덴탈리즘을 야기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19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정 정도 정착되자, 점차 서구 근대에 대응하는 근대화론이 등장하였는데, 유교자본주의나 유교근대화론이 대표적이 예이다. 현재는 이러한 근대 담론이 대안 근대성 차원에서 다중 근대성, 횡단 근대성 등으로 확대•발전한 상태이다.[4)]

다만, 2014년 이 분야의 연구들은 양과 질에서 모두 새로운 연구 양상을 많이 보여

4)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체제로 인해 유교근대화론 또는 유교자본주의론이 쇠퇴하였지만, 2000년부터 다시 대안근대성, 다중근대성 또는 횡단근대성 등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 논의들은 모두 근대성을 서구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전통과 근대와 차별성이다. 서구와는 다른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 대안적 근대 논의들도 결국에는 전통과 현대의 차이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서구의 근대의 핵심 개념인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는 못하였다. 특히 중국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전체 연구 성과가 적고, 특히 유교나 철학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적으며, 그 중에는 비한국인인 중국계 학자들의 연구도 2편이나 있다. 그나마 중국의 경제발전과 유교열儒敎熱(?)을 배경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담론, 연구 방법, 주제 등이 제시된 것이 긍정적이다. 본론에서는 연구 경향과 그 학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 연구의 주요 인물로는 역시 금문공양학파인 양계초梁啓超, 강유위康有爲, 담사동譚嗣同 등이다. 초기 이들은 유교의 현실참여 의식을 근거로 하여 서구 수용을 통한 사회개혁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과거부터 이 시기 연구들은 이들의 변법사상, 서구 수용 등을 서구의 근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정현숙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取隋」·「卑唐」篇譯註	목간과문자 12	한국목간학회
철학	이상옥	양계초와 왕국유의 니체 수용	니체연구 26	한국니체학회
사학	김형열	청말민초 중국지식인의 일본유학과 동아시아 인식	일본근대학 연구43	한국일본근대학회
사학	구신셩	1902年梁啓楚"史界革命"的再審視	중국사연구 93	중국사학회
문학	이종민	梁啓超 『新中國未來記』 譯註(1)	중국현대 문학68	한국중국현대 문학학회
문학	이종민	梁啓超 『新中國未來記』 譯註(2)	중국현대 문학69	한국중국현대 문학학회
문학	송일기, 정성미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編纂考	서지학연구 57	서지학회

특히 전년도 연구에는 양계초 연구가 활발했다. 양계초에 대한 연구는 과거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또는 대만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을 정점으로 유교가 반동으로 매도되었고, 이에 따라 1902년 이후 보수화된 양계초 역시 반동으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1980년대 문화열文化熱이후 중국에서도 양계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학자가 리쩌허우[李澤厚]이다. 그는『중국근대사상사中國近代思想史』에서 양계초에 대해 '과와 더불어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공'이란 1902년 이전에 남긴 양계초의 저술들이다. 그는 '이 저술들은 이후 중국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과서였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그는 루쉰[魯迅], 후스[胡適], 꿔마루어[郭沫若] 심지어 마오쩌똥[毛澤東]까지 양계초의 영향을 받은 후대 인물들로 논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리쩌허우가 '과'로 규정한 영역까지 재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현재 중국 유교열에 부합하는 유교지식인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교적 천하관에 기초한 다민족국가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해석과 평가는 현재 중국 사회의 보수적 현실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한국의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그 중 이종민의「梁啓超『新中國未來記』譯註」(1), (2)은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전적은 1902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의 전반기 사상을 종합한 책이다. 여기서 그는 미래 중국의 국체를 입헌군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만년사상인 유교주의와 천하관적 다민족국가와는 상충된다. 또 연구 중에는 양계초를 양명학자로 규정하고 그 사상을 니체의 철학과 연결시킨 이상옥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한국의 양계초 연구가 중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황야	譚嗣同《仁學》思想體系及其生命實踐	退溪學論集 14	퇴계학 부산연구원
철학	노병렬	『중국민약정의』에서의 개인과 국가 -중고(中古)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그 외 인물로는 담사동과 유사배가 있다. 대만학자인 황야치[黃雅琦]는 대만신유가의 유교철학적 기원으로 담사동의 인학仁學을 분석하였고, 노병렬과 천병돈은 보수파와 혁명파를 오갔던 유사배를 그의 『중국민약정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이윤미	현대신유가를 통해 바라본 현대 유교	종교연구 74-2	한국종교학회

이윤미는 대만신유가인 뚜웨이밍[杜維明]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이윤미는 '뚜웨이밍을 제3세대 현대신유가'로 평가하고 그의 유교 철학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근대기 유교에 대한 주제로 전통 유교의 연장선에서 시도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3. 주제별 분류

먼저 경학 관련 연구로는 대만학자인 황야치[黃雅琦]의 연구가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黃雅琦	譚嗣同《仁學》思想體系及其生命實踐	退溪學論集 14	퇴계학 부산연구원

이 연구는 전통적 경학은 아니지만, 전통 개념인 인仁을 연구함에 있어 당연히 경학적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담사동의 인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추론하였

다. 인仁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 연구는 현대 동아시아 사회 특히 중국에서 재조명되는 유교에 대해 그 현대적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리였다.

철학 분야에서는 당시 서구 수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병렬 • 천병동, 이상옥, 김형열, 루신셩[路新生], 이영옥, 유봉희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노병렬, 천병돈	중국 민약정의에서의 개인과 국가 -중고(中古)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이상옥	현대성의 이중성 - 양계초와 왕국유의 니체 수용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26	한국니체학회
사학	김형열	청말민초 중국지식인의 일본유학과 동아시아 인식	일본근대학 연구43	한국일본근대학회
사학	루신셩	1902年梁啓楚"史界革命"的再審視	중국사연구 93	중국사학회
사학	이영옥	청나라의 정치구조 변화 -1850-1864	중국사연구 93	중국사학회
사학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와 관련해서는 서구 수용적 인식이 타당했는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았는가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이 논의는 결국 근대성 담론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전자처럼 당시 중국의 서구 수용이 타당했다면 그것은 서구의 근대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처럼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대안 근대성의 초점을 맞춘 시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동아시아의 근대성 연구는 과거 서구적 담론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의 유교를 비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또 이것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박희는 이러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더 정확히는 현재 중국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회	박희	동아시아의 다중근대성과 유교근대화 담론	아시아연구 17-2	한국아시아학회

즉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과 유교에 근현대적 위상을 요구하였고,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베버이후 근대성 담론의 중심 분야인 사회학의 연구 성과이다. 이외에 정통 유교 철학 측면에서 대만신유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고영희의 연구가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정치	고영희	근대 중국에서의 공자	유학연구 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정치	고영희	知行合一에서 力行으로	양명학 39	한국양명학회

고영희는 「근대 중국에서의 공자」에서는 근대기 중국에서 당시 중국 사회에 대한 애증을 공자를 통해 표출하려던 행태를 조명하였다. 또한 「知行合一에서 力行으로」에서는 강유위, 양계초 등의 개혁사상을 양명학적 실천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영희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수여받은 연구자로 동아시아 전통학문에 충실한 연구를 시도해 왔다. 이들 연구들도 당시 유교라는 표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한 성과들이다.

이외에 문학 분야에서는 이종민, 송기일 • 정성미의 양계초 저술 번역, 정현숙의 강유위 저술 주석이 있고, 교육 분야에서 이영란의 대동사상 연구가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정현숙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取隋」·「卑唐」篇譯註	목간과문자 12	한국목간학회
문학	이종민	梁啓超 『新中國未來記』 譯註(1)	중국현대 문학68	한국중국현대 문학학회
문학	이종민	梁啓超 『新中國未來記』 譯註(2)	중국현대 문학69	한국중국현대 문학학회
문학	송기일 정성미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編纂考	서지학연구 57	서지학회
교육	이영란	중국 대동사상(大同思想)과 근대교육	인문학연구 48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14년 근대 중국 유교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 볼 연구는 유봉희의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이다. 이 연구는 원래 '신소설 작가들의 사회진화론 인식론에 대한 序說'이라는 부제가 보여 주듯이 근대 한국 신소설에 나타난 사회진화론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저자는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흐름을 헉슬리(Thomas H. Huxley)와 키드(Benjamin Kidd)를 근거로 한 엄복嚴複과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브룬츨리(Johann Casper Bluntschli), 헤겔과 가토히로유키[加藤弘之]를 거친 양계초의 국가주의론으로 구분시켜 보고 있다.

유럽을 연쇄고리로, 엄복・양계초・가토 히로유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회진화

론의 수용과, 그 계보를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애국계몽기 우리의 작가들은 중국・일본을 통해 이들의 사상을 수용했다. 이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중국이냐, 아니면 일본이냐, 다음 누구로부터 사회진화론사상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당시 우리 작가들의 인식론을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을 형성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영국의 진화론사상이냐, 아니면 국가 우위 사상으로 내장한 독일의 진화론사상이냐 하는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다.(중략)

헉슬리・키드 →엄복・양계초의 계보 속의 사회진화론사상. 이것은 신소설 작가 이해조와 1910년대 현상윤・양건식으로 이어져 반전통, 비윤리적 '양육강식・우승열패'의 세계에 대한 회의로 나타난다. 모두 양계초를 매개로 수용한 사상이다. 양계초는 엄복으로부터, 엄복은 독일의 사상이 아니라 영국의 스펜서와 헉슬리 사상을 조화, 재창조한 것이고 보면, 강력한 국가주의에 기운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진화론사상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스펜서・블룬칠리・헤켈 →가토 히로유키 →양계초로 이어졌다는 동아시아 사회진화론 수용의 계보는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중략)

블룬칠리・헤켈 →가토 히로유키의 독일의 강력한 국가주의 사회진화론 사상은 이인직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인직은 일본의 영향을 짙게 받은 위계적・계서적 문명론과 식민제국주의적 성격의 진화론을 자신의 개화사상으로 무장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그가 친일작가였냐 아니냐 하는 차원을 넘어 그가 그토록 추구한 반봉건성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5)]

엄복 천연론 즉 사회진화론의 사상적 기원인 헉슬리와 키드는 실제로 사회진화론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그들은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질서가 인류사회에 반하는 질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사회진화론적 국제질서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양계초가 1902년 이후 브룬출리의 국가론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양계초가 브룬출리의 국가론을 수용하게 된 이유 중에는 당시 질서의 극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계초는 1902년 정확히는 미국 방문 이후부터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간다. 그는 서구 사회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이 사회 역시 이상사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그는 공화정(민정)과 이에 기반이 되는 사회계약론(민약론)을 파기한다. 그것은 '미국의 공화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를 중국에 바로 이식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컸다. 동시에 그는 공화정이 다민족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상 변화를 통해, 그는 공화정을 버리고 독일식 군주정을 중국에 이식시키려 했다. 즉 양계초의 브룬출리 수용은 단순히 사회진화론의 현실적 수용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또 '이인직이 브룬출리-가토-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는 주장에도 일부 논리적 문제가 있다. 사실 이 세 명 모두 보수주의자들이고, 그 중 양계초와 가토는 독일식 군주정을 주장하지만, 국가통합을 이유로 자국의 전통적(봉건적) 계급질서도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인직의 반봉건 경향이 이들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것이라 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

5) 유봉희(2014). 202-203면 참조.

노병렬・천병돈의 「『중국민약정의』에서의 개인과 국가」는 중국 근대기를 살았던 유사배劉師培에 대한 연구이다. 유사배는 '루소의 민약론 사상을 통해 중국의 민주정부를 설립하고자 한 혁명파의 일인으로서, 중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민주적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중국민약정의』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상고, 중고, 근세의 세 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에서는 중국의 정치인들과 그 사상을 민약론과 대비시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 중고편에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유사배가 설정한 中古시대는 漢代부터 宋代까지다. 이 시기 중국은 황제가 국가를 대표하는 전제군주 정권이다. 따라서 국민은 황제의 소유물이었고, 국가 또한 황제 개인의 소유물이다. 이러한 전제군주제 아래서 개인(民)의 권리를 강조한 사상가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유사배의 시도는 획기적이다.
> 유사배는 『중국민약정의』를 통해 중국 中古사상가들의 '민주적 사상'을 논평하면서, 자신의 민주 이념을 서술했다.[6]

이 연구는 '유사배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국에 이식시키고자 했다.'고만 적고, 그 성공 여부와 - 물론 실패했지만 -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또 유사배의 이 같은 시도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서구와 비견되는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에서 사회계약설과 유사한 주장이 없을 수 없다. 양계초는 초기 『자유서』 등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였고, 말년 『선진정치사상사』에서는 묵자의 정치관을 공화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선 후기 정약용도 「탕론」, 「원목」편에서 고대 정치를 근거로 근대적 민주주의와 유사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므로 유사배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까지 획기적이라고 평하기는 좀 더 치밀한 논고가 필요하다.

황야치는 「譚嗣同《仁學》思想體系及其生命實踐」에서 담사동의 인仁사상을 '범인신앙(泛仁信仰)과 초월의식(超越意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담사동은 강유위, 양계초와 같은 금문공양학파로 이 둘과는 달리 무술변법기에 유명을 달리했다. 황야치는 담사동의 '인학'을 네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 첫째는 『인학』은 인으로써 실질을 삼고 평등으로써 요체를 삼으며 통으로써 귀함을 삼는다는 것이다. 인이란 그가 가슴에 품은 종국적 가치이고 평등은 그가 삼강을 비판한 이론적 근거이며 통은 변법을 주장하고 사치를 버리고 검소함을 장려하며 일신생동을 강구하는 일상생활의 사상적 기준이다., 둘째는 담사동 사상이 중국과 서구를 포괄하고 제가를 조화시키며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중략) 셋째는 인으로써 예를 물리치고 격식을 없애서 당시에 있던 전통 문화 중에서 아버지(혈연), 임금(정치), 성현(도덕)의 삼자의 잘못된 연결 문제를 해소시키는 반전통 사상을 담고 있다. (중략) 넷째로 (인학을) 천인을 일관하는 사상 체계화하여, 인학을 경세학적 논리에서 독립시켜 불교, 기독교, 장자, 묵가 등의 여러 개념들과 병행하는 인식을

6) 노병렬・천병돈(2014). 305면 참고

만들었다.[7]

대만학자인 황야치는 담사동의 인사상을 근대적 평등사상의 양상으로 이해하고, 그 근거로 근대적 과학과 동서의 종교의 영혼론 등을 이론을 차용했으며, 나아가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예식의 근본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담사동, 양계초 등 중국 근대기 유교지식인들의 사상을 대만신유가와 연결시키고자 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역시 대만신유가처럼 이성과 감성, 개인과 국가, 과학과 종교를 모두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기심성론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한국 유교 연구와는 다른 대만의 다양한 연구 관행을 보여 준다.

이상옥은 「현대성의 이중성-양계초(梁啓超)와 왕국유(王國維)의 니체 수용(受容)을 중심으로-」에서 1840년 이후 중국의 근대화 또는 근대성 담론에 있어 니체 철학이 미친 영향을 양계초와 왕국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니체 철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필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논문이었다. 특히 니체의 입장에서 보면 '양지(良知)는 진정한 허위이다.'라는 그의 언급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양계초의 전적 중 『덕육감德育鑑』에는 양명의 격물치지 즉 주관인식론의 근거로 '진아眞我'라는 불교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진아는 초월자아의 의미이다. 양명학이 양지를 통한 일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양지가 곧 진아이고, 초월자아라고 한다.'면 니체 철학과 양지도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박희의 「동아시아의 다중 근대성과 유교 근대화 담론」을 생각해 보겠다. 유교를 근대성과 연결시켜 본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전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연장선에서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한 회의와 대안에서 출발한 것이었다.[8] 유교의 근대성 즉 유교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출발은 1970년대 일본,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신흥공업국 즉 일명 '아시아 四龍'이 형성되면서부터였다. 유교자본주의는 한일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 이론을 체계화시킨 인물은 한국의 김일곤이다.[9] 이후 '유교자본주론'는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

---

7) 其一、《仁學》以仁爲質，以平等爲要，以通爲貴。仁是他所服膺的終極價值，平等是他批判三綱的理據，通是他主張變法、黜儉崇奢(黜奢崇儉의 오기 ; 논자 주)、講求日新生動、通商生利的思想準則。其二、譚嗣同思想博採中西、調和諸家，又日生日新。(중략)　其三、以仁黜禮、消解形式，浮現傳統文化中父(血緣)、君(政治)、聖(道德)三者之間錯置連結的問題，蘊含反傳統思想。(중략) 其四、以天人貫通的思維模式，建立了仁學經世的存有論，並以釋、耶、莊、墨的名言概念建構了認識論。황야치(2014). 159면 참조.

8)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재미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전통의 근대적 지향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의 근대적 지향성이 밝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이 이론은 메쯔거(Thomas A. Metzger), 코헨(Paul J. Cohen), 하오 창(Hao Chang, 張灝), 黃克武 등 주로 1960년대 재미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과 근대성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존 베버(Max Weber)-레벤슨식의 서구 중심적 근대화설을 비판, 극복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부각된 유교와 근대성에 관한 연구들은 전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한 회의와 이에 대한 대안 연구의 토대 속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이후 일본 및 이른바 아시아 사룡의 경제발전과 그 해석에서 출발한 유교자본주의와는 다른 성격이었다. 김홍경, 「유교자본주의론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2호, 열화당, 1999. 10~14면 참조.

9)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유교와 연결시키는 시도는 원래 서구 경제학자들 중 칸(Herman Khan), 베거(Peter Beger) 등에서부터이다. (김홍경, 「유교자본주의론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2호, 열화

공업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규명하는 동아시아의 주요 지식 담론이 되어졌다. 비록 '유교자본주의론'이 다소간의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10] '유교적 전통의 연장선에서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화와는 구별되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 근대성 담론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11]

박희의 연구는 여기에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다중 근대성, 횡단 근대성을 포함한 시도이다. 다중 근대성 또는 횡단 근대성 같은 현재 대안 근대성 담론은 주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철학과 경제에 한정시킨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주로 문화 또는 문화 현상을 중심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문 현상으로 지구상 모든 사회, 지역, 국가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이 담론은 원론적으로 '지구상 모든 지역에서 근대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점은 과거 서구 근대화만을 강조했던 서구학자들이나, 유교자본주의를 통해 서구에 동아시아를 넣고

당, 1999. 10~14면 참조) 하지만 이 시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일본의 모리시마 미치오에 의해 유교자본주의라는 학적 용어로 구체화되었다. (최영진,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 성대 출판부, 2002.「Ⅲ부 유교, 오늘의 담론」169면 참조) 하지만 모리시마의 유교자본주의는 구체적 이론이 부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한국의 김일곤에 의해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동아시아의 전통 유교의 특징을 ① 통치자 중심의 집권체제, ② 충효일치의 인간관, ③ 농본주의적 경제관, ④ 평화주의 및 ⑤ 교육 중시 전통 등으로 보았다. 이중 통치자 중심의 집권체제는 전후 이 지역에 권위주의 정부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 권위주의 정부를 통해 모빌라이제이션 시스템, 국가 계획주의적 혼합경제 체제 구축, 사회적 조화를 이끌어 내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충효관과 가족중심주의는 사회 집단의 효율적 관리, 내셔널 컨센서스, 기업의 노사 단결을 가져왔고, 농본주의적 경제관은 건전한 노동의식과 근면성을 가져왔으며, 교육 중시 풍조는 우수한 산업인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교에 대해서도 그는 '전통 유교가 근대화 과정을 통해 정치 체제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민간생활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근대적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근대화의 강한 목적의식으로 표현되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일곤,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85. 233~241면 참조)

10) 이철승에 의하면, '유교 자본주의론'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여기서 말하는 유교가 전통적으로 유교라 말하는 유교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부차적으로 나타난 국가 또는 사회 현상(특히 경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의 말단 또는 일부분을 극대화시켜 근대성과 일치시키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할 수 있다. 둘째로는 '유교 자본주의론'을 비롯한 유교와 근대성의 병존을 주장한 사상들이 거의 대부분 막스 베버가 『유교와 도교』에서 주장한 '동아시아의 근대화 가능성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 정합성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 자본주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언급한 '개신교로 부터의 자본주의'라는 논리에 '기독교' 대신 '유교'를 넣어 유교의 근대성을 설명하려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동아시아의 유교가 이 지역 근대성에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했다는 베버의 『유교와 도교』속 '동아시아와 근대화의 부정적 관계'는 일정정도 극복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우연한 의식의 전환이 근대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베버 이론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철승,「"유교자본주의론"의 논리 구조 문제」,『중국학보』51집, 한국중국학회, 2005.

11) 최영진 교수는 조선 성리학의 전근대성으로 신분제 계급주의, 남성우선주의, 수동적 도덕관, 전체주의, 주술적 세계관 등을 보았고 대부분 조선 초기 국가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유교적 이론과는 달리 부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 내부에서부터 '구체제에 지속적으로 속할 것인가' 아니면 '근대 사회로 나갈 것인가'하는 담론들에 직면하고, 기존 전근대적 요소에 일정한 반성이 나타났다. 陰陽理氣論에 기초한 남녀평등관, 한원진의「性三層說」중에 나타난 인문주의, 정약용과 이간의 자율적 도덕성, 퇴계학과 율곡학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理氣合一의 통일적 세계관 등은 전근대적 사고에서 근대적 사고로 전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며,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켜 인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는 실학의 대두는 성리학적 국가 기반 하에 근대적 산업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영진,「유교의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 -조선성리학과 실학을 중심으로-」, 부산대 특강(2009. 11. 18) 중에서

자 했던 재미 중국학자 및 한일 학자들과는 다른 시각이다. 박희는 이런 시각을 '리오리엔트'라는 용어로 구체화하였다.

> 이 글은 먼저 서구의 자본주의 기원론에 담겨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의 문제를 검토하려 하였고 그 논의의 연장선에서 19세기 이후 아시아 사회가 보편사의 권외로 밀려나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등장했던 유교 자본주의론이 대체로 개신교 윤리의 기능적 등가물을 찾는 문화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세계 체계론과 리오리엔트 담론은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국 등의 아시아 사회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지만 발전을 가능케 했던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단지 상황을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
> 따라서 이 글은 중세와 근대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기존의 설명 방식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 근대성 담론'이 떠오르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것은 현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기축 시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중 근대성 담론의 흐름을 타고 제기되고 있는 '유교 근대화론'은 서구의 잣대와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시아적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기술은 그의 연구가 결국은 중국의 등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거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근대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새로운 다중 근대성으로 시각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논의 중 2/3는 별로 새로울 것이 기존 연구의 자기식 정리와 환언이다. 서술상에서 굳이 사회학 분야의 유사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찾자면, '요나하 준'(與那覇 潤)과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의 논의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깊은 수준은 아니고, 간단히 유교(주자학)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가체제가 그 당시 서구보다 합리적이었다는 평가 정도이다. 특히 유교를 전공한 동아시아 문사철 연구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유교 이해에는 다소 못 미친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가치는 무엇인가? 먼저 1997년 일명 IMF사태인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거의 사라진 유교자본주의를 다중 근대성으로 환원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유교자본주의가 위축된 이유에는 '전통적 온정주의가 당시 사태를 키웠다.' 부정적 정서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유교자본주의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근대성 논의들은 다중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담론으로 리폼하였는데,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발전을 유교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유교는 경제 뿐 만 아니라 문화,

12) 박희(2014). 113면 참조.

정치, 사회 및 (국민) 윤리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현상을 사회학 분야의 기초 연구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유교연구자들에게 유교자본주의 이후 새롭게 제기되는 다중근대성, 횡단근대성 등의 문화기반 근대성 담론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다.

비록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차이에 따라 유교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미진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중 근대성은 유교자본주의 못지않은 유교 담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서 유교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라 평가된다.

5. 평가와 전망

2014년 근대 중국 유교 연구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 근대 한국 유교 연구에 비하면 다소 침체기라 하겠다. 이미 기존 담론은 연구가 고착된 상태이고, 새로운 담론은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기존 한국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양계초의 몇 편의 전적이 번역되었다. 이것은 향후 연구에 토대로서 양계초 등 당시 주요 사상가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이다.

주요 경향을 보면, 여전히 금문공양학파 즉 양계초, 강유위, 담사동에 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대만신유가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학회지에 중구계 학자들의 투고도 있었다. 황야치의 연구는 대만신유가의 입장에서 담사동의 인학을 정리한 것으로 근대이후 면면히 이어진 중국의 유교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한 연구였다. 하지만 중국의 루신셩[路新生] 연구는 한국의 연구 성과를 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향후 근대 유교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연구도 있었다. 사회학자인 박희의 '유교와 다중 근대성에 관한 연구'는 유교자본주의 이후 다소 침체된 유교와 근대성 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문화 분야에서는 다중근대성, 횡단근대성 등 대안적 근대성 이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 중 전문 유교 연구자들은 매우 부족하다. 즉 사회학자들의 유교 이해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유교 연구자들과의 융복합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근대 연구는 여전히 양질에서 다른 연구 영역보다 미진하다. 근대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전통과 근대성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동시에 전통과 근대를 동시에 연구해야하는 복합성으로 인해 연구 방법과 진행의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